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 문화재 정책 전공



E-mail : heritagist@daum.net

국/문/초/목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활용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문화재 활용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 관심과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화재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활용 경향과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고, 활용 유형 분류체계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문화재 활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용의 개념 설정과 유형 분류 등 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문화재 활용의 범위와 경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활용은 대상 문화재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활용 목적과 방법 등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등록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미지정문화재와 전통문화 전반으로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로부터 효용을 얻는 일', 즉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의 사례와 정책들을 살펴보면 문화재 활용은 그 목적과 형태, 방식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문화재 향유, 교육적 활용, 학술적 활용, 지역적 활용, 경제적 활용, 세계적 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활용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는 단독 활용, 연계 활용, 융합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활용 방식에 따라 원형 활용(현재화)과 변형 활용(현대화)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직접(1차적) 활용과 간접(2차적) 활용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확장하고, 실질적 기준에 따라 활용 유형을 분류하는 등 기본적인 틀이 구축될 때 문화재 활용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문화재, 문화유산, 활용, 개념, 유형, 분류

투고일자 : 2013. 08. 31 | 심사일자 : 2014. 01. 23 | 게재확정일자 : 2014. 02. 05



문화재 활용의 도입과 전개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문화재⁰¹를 가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에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관리 부서를 설치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등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민 다수가 희생을 감내하며 경제개발에 몰두하던 시기에도 문화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⁰² 이런 인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은 50년이 넘는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화재 활용은 최근에 와서야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재 관리에서 '원형유지'를 강조함에 따라,⁰³ 문화재를 활용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원형(原形)대로 보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는 1962년 제정 당시부터 '활용'을 명시하였다.⁰⁴ 이것은 문화재를 보호 대상, 또는 과거의 자취를 담은 단순한 '잔존물'(survivals or relics)⁰⁵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활용 가치를 가진 생산적 산물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만 이 시기의 문화재 활용은 관람이나 향유 등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등 사회적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문화관광'으로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고, 문화를 향유하려는 욕구가 빠르게 증대되었

다. 여기에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정체성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지역 자원으로서 문화재 활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⁰⁶ 이 무렵 문화재 답사 붐이 일고, 지역이나 직장, 또는 PC통신 등에 기반을 둔 답사 동호회가 다수 조직되는 등 문화재 활용 양상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이러한 환경 변화의 결과였다.⁰⁷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문화재 정책은 보존만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활용을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그 기초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관람·감상과 답사에서부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유형·무형문화재 융합 활용, 문화재 장소 활용, 지역 문화재 자원화,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문화재 활용 시도들이다. 이처럼 문화재 활용 정책은 다각화·적극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민간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활용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해온 것과 달리, 문화재 활용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 등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재 활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최근의 활용 사례와 경향 등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활용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01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을 포괄하여 문화재(cultural properties)라고 불려왔다. 최근에는 '국가유산'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종래와 같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묶어 문화재로 칭한다.

02 「조선일보」(1959.09.18.)에는 청계천 복개로 인한 수표교 이전을 두고 '우리는 歷史上의 古蹟으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두어야 할 水標橋의 移轉措置까지도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覺悟하였던 만치……'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실렸다(류호철, 2008, 「사회적 공간으로서 청계천의 의미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1호, 역사문화학회, p.289). 이를 통해 수표교가 아직 지정문화재가 되기 전임에도 이미 이 시절에 '역사상의 고적', 즉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3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04 1962.01.10. 제정 「문화재보호법」 제1조 (목적) 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05 E. B. Tylor는 현재도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는 관습과 구분하여, 이미 유용성을 상실하고 문화의 다른 부분과 더 이상 통합되지 못하게 된 관습을 survival, 즉 잔존물(殘存物) 또는 문화잔여(文化殘餘)라고 명명했다. E. B. Tylor, 1958[1871], *Primitive Culture*, New York: Harper 참고.

06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부활했고, 1996년 지방선거부터 단체정까지 선출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07 1990년대에 PC통신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전국 규모의 문화재 답사 동호회로는 '천리만 문화유산답사동호회 우리열'과 '하이텔 고적답사동호회'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단체에서는 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전국의 문화재를 답사하였다.

문화재 활용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 사례

1. 좁은 의미의 활용 개념과 그 한계

문화재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활용에 관해 논하면서도 그 개념과 유형, 범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사례를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별 문화재, 특정 유형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특정 지역 문화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만 집중해온 것이다. 그렇다보니 다양한 활용 사례와 경향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의 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많지 않은 논의 중에서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다음 것들에 주목해볼 만하다. 우선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문화재청, 2006)와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문화재청, 2007)에서는 문화재 활용을 “문화재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였다.⁰⁸ 이는 “본래 그것이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려 사용하는 행위”라는 활용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문화재를 가치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와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문화재 활용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정의는 ‘지속가능하게, 효율적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뿐,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동어반복에 그친 것이다. 또한 문화재를 이용하는 행위로 제한함으로써 오늘날의 문화재 활용 추세를 담기에는 그 범위가

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이용 대상, 즉 객체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뒤에서 분석할 문화재 활용 유형 분류에서도 반복된다.

한편 장호수(2006)는 문화재 활용을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능을 찾아내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거나 변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⁰⁹이라고 하였다. 앞의 정의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변용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한층 유연해지고 적극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활용에 집중함으로써, 문화재의 존재 자체가 갖는 의미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활용 사례와 경향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활용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2. 활용 유형 분류 사례 분석

그동안 시도된 활용 유형 분류는 대체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연구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들을 분석해보면, 활용 목적이나 방법에 따른 분류, 활용 대상 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활용 목적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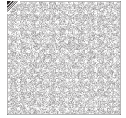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와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에서는 문화재 활용을 ‘관광화, 교육화, 산업화, 상품화’로 분류하였다.¹⁰ 이것은 주로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에는 문화재 활용 유형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을 뿐, 각 유형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범위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이러한 활용을 위

08 문화재청, 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 p.31;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p.16.

09 장호수, 2006, 『문화재 활용론 - 활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 『인문콘텐츠』 7집, 인문콘텐츠학회, p.157.

10 문화재청, 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 p.40;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p.31.



해서는 보존, 복원, 보전, 재조립, 전용, 재건축 등을 허용하여 보존 방식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들의 개념을 인용해두었다.¹¹ 즉 보존, 복원, 보전, 재조립, 전용, 재건축 등을 통해 관광화와 교육화, 산업화, 상품화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분류는 유형문화재, 특히 건축문화재 활용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활용 대상이 확대되고 활용 방식도 다양해지는 상황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관광화와 상품화, 산업화 등은 서로 중첩되는 관계에 있어서 구분이 모호하다. 문화재를 관광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상품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광산업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화에 포함되기도 한다.

요컨대 활용 유형 분류를 시도한 것이지만, 일부의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분류 항목들 간에 배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2) 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분류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문화재청, 2010)에서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 주목하여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대상 문화재를 기준으로 유교문화재형, 전통마을형, 유적지형, 자연·명승형, 근대문화재형, 무형문화재형, 역사인물지형, 공공시설형 등 여덟 가지로 나누었고, 서비스 목표에 따라 오락형, 교육형, 감성형으로, 향유 형태를 기준으로 관광형, 답사형, 참여형, 체류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것은 대상 문화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활용 유형을 나눈 것이다. 문화재 유형 분류와 향유 유형 분류를 연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것은 문화재를 향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실제 운영되

는 활용 프로그램들을 세 가지 기준을 세워 분류한 것으로, 현장성이 비교적 크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활용 유형들은 답사와 관람 등 '문화재 향유'에 국한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문화재 활용 유형이라기보다는 문화재 향유 유형을 분류한 것이어서, 일부의 활용만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향유 형태를 기준으로 한 세 번째 분류에서 관광형은 나머지 유형, 즉 답사형, 참여형, 체류형과 서로 중첩되는 것이어서 배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도 한다.

3) 활용 방법과 목적에 따른 분류

『문화재 활용 기본계획 연구』에서는 활용 유형을 현재화,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 등으로 나누었다.¹² 역사적 산물인 유형·무형문화재가 오늘날에도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현재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대중화로 분류하였다. 또한 문화재를 관광 등의 방법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간접 이용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산업화라고 하고, 문화재를 이용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이나 전시와 공연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세계화로 분류한 것이다.

이것은 활용 방법과 목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문화재 유형 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대부분의 문화재를 포괄하는 분류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화는 활용 방법에 가까운 것인데 비해 다른 것들은 활용 목적에 해당하는 등 분류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현재화와 대중화 등 분류된 유형 간에 충분한 배타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호수(2006)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¹¹ 이것은 James M. Fitch, 1998, *Historic Preservation: Curatorial Management of the Built World*, Th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p.46; 김창규·류호철, 2006, 『지방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문화재학』 제3호, 한국전통문화학회, pp.22~24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¹² 류호철 외, 2012, 『문화재 활용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에서 제안한 활용 유형 분류 방안을 수용하여 일부 고친 것이다.

국가 브랜드화와 지역 브랜드 개발, 주제공원, 거리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근대건축물 재생과 활용, 문화재 복원 및 재현과 새로운 기술, 전통만들기 등 일곱 가지를 문화재 활용 사례로 언급하였다.¹³ 주요 사례들을 유사한 것들끼리 묶은 것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른 분류가 아니며 예시된 항목들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오늘날의 활용 양태 중 일부에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활용 유형 분류로 보기는 어렵다.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유형 분류 방안

1. 활용 개념의 확장

1) 활용 환경 변화와 활용 정책의 경향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적절히 정의하고, 의미 있는 활용 유형 분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활용 경향을 파악하는 일과 활용을 둘러싼 환경을 인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문화재 활용 환경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첫째는 문화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지정문화재가 법률상 문화재의 전부였다가,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더하여 근래에는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될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을 미리 선정하여 보존하기 위해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재의 범위가 확대되면 활용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며, 활용의 개념도 따라서 확대되어야 한다. 근대건축물들이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등록문화재 제도에

의해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으로 새롭게 기능하는 사례는 문화재의 개념 확대가 곧 활용 범위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문화재 활용에 관한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보존·보호와 가치 확대에 긍정적이고, 보존과 활용이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재 활용은 보존과 가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치 저하를 야기하는 행위는 훼손일 뿐 처음부터 활용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문화재를 자원으로 생각하는 등 활용 환경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이루어져온 활용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활용 경향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예컨대 궁궐 활용 프로그램은 전통공연, 강연, 전통문화 체험, 의례 재현, 궁궐문화 교육, 전시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고 있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궁궐에서 베풀어진 전통문화 공연만도 거의 100회에 이른다.¹⁴ 여기에 2012년 경주 양동마을과 순천 낙안읍성에서 선보인 ‘문화유산 지식콘서트’는 문화유적에서 전통문화 강연과 전통공연이 어우러진 것으로, 향유 프로그램을 궁궐 이외의 문화재로, 그리고 지방 소재 문화재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개방·공개를 확대하여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창덕궁 후원 개방(제한 관람), 경복궁 경회루(사전 예약)와 숙정문 개방, 창덕궁 낙선재 개방, 한양도성 북악산 구간 개방 등이 문화재를 국민에게 열어 보인 사례들이다.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송례문 복구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였는데, 문화재 향유의 범위를 넓히는 시도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셋째, 근대문화재의 기능을 되살리거나, 적절히 변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 있

13 장호수, 2006, 「문화재 활용론 - 활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 『인문콘텐츠』 7집, 인문콘텐츠학회, pp.163~169 참고.

14 문화재청, 2012, 「살아 숨쉬는 4대궁과 종묘 만들기 추진계획: “품격은 높게, 문턱은 낮게” -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궁궐」, 참고.



다. 부산과 목포의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 건물은 근대역사관이 되었고, 인천과 군산 등지의 개항기 일본 은행 지점 건물들도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으로 기능하고 있다. 1800년대에 지어진 창고가 미술 전시공간이나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거듭나기도 했고, 오래된 상점이나 주택이 고풍스러운 본래의 외관을 유지한 채 내부만 개조하여 옛 정취를 전해주기도 한다.

넷째, 문화재 활용과 전통문화 계승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에서 지역 주민들이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지내는 당산제(堂山祭)와 동제(洞祭) 등을 지원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자연유산 보존과 무형문화재(전통문화) 전승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61건의 민속행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¹⁵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생생(生生) 문화재' 사업은 지역 문화재를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문화재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호응이 높다.¹⁶

다섯째, 우리 문화재를 세계화함으로써 국위를 드높이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건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유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10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고,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아리랑과 김장문화 등 16건을 등재하였으며, 등재 유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7월 27일자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재 환수와 현지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은 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호와 활용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

상을 높이기도 한다.¹⁷

여섯째, 전통 공연과 공예 등 무형문화재 향유를 확대하고 자원으로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정책이 전승 단절을 막기 위한 전승자 지원 중심에서 전통 공연과 공예를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¹⁸ 이는 무형문화재를 살아있는 현대 문화로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활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첨단 정보기술과 연계하여 산업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발맞추어 2012년에는 모든 지정문화재 안내판에 QR코드를 부착했고, 3D 콘텐츠와 홀로그램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를 소재로 사진, 영상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헤리티지 채널' 운영도 점차 품질을 높여가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 문화재 영상관(박물관) 건립, 디지털 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등을 추진하며 정보기술을 이용한 문화재 활용과 가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덟째,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단체 전문 인력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유산 방문교육'이나 매장문화재 발굴 법인 등을 통해 발굴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고고학 체험교실', 학교 문화재 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유산 창의체험학교' 등이 이에 속하는 정책 사례들이다.¹⁹

아홉째, 민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하는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²⁰과 지역 민간단체를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하여 주기적인 순찰과 모니터링, 잡초 제거, 제설, 환경 미화, 경미한 수리 등 일상적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재 돌봄

15 문화재청, 2013,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보도자료.

16 문화재청, 2013,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계획」.

17 문화재청, 2013, 「문화유산 ODA(공적개발원조) 기본계획(안)」.

18 문화재청, 2012,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 문화재청, 201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2012~2016」 참고.

19 문화예술교육은 현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음악, 미술 등 10개 분야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국악 분야 1,733명 등 총 4,164명의 예술강사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만큼 활성화 되고 있다.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기반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20 2012년 12월 말 기준, 개인, 가족, 단체, 청소년지킴이단 등을 포함하여 총 99,942명이 '한 문화재 한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46개의 기업·기관이 문화재청과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문화재청, 2012.12.31,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참고.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문화유산 방문교육' 등도 민관 협력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문화유산 '이야기 자원'을 발굴·정리하고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경영 기획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지역과 민간의 문화재 활용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 확장된 활용 개념의 정립

오늘날의 문화재 활용 경향을 종합해보면, 문화재 활용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에서부터 문화재를 관람하고 감상하는 일, 현장을 찾아 답사하는 일, 참여하고 체험하며 누리는 일, 고품스러운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 지식과 교훈을 얻는 일, 경제적 효과를 얻는 일, 구성원들 간 유대를 강화하는 일,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과 효과, 목적,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문화재에 내재된 가치를 더욱 넓게 인식하고 문화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등 활용 환경도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 경향과 환경 변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문화재의 가치를 직접 누리는 것과 그것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재의 가치를 직접 누리는 일이란 「문화재보호법」에서 말하는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의 존재 자체로 만족감이나 안락함, 쾌적함을 얻는 것에서부터, 답사와 관람, 문화재 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얻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 자체가 보호이면서 동시에 활용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문화재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문화재를 소재로 하여 문화재 자체가 주는 것 이외의 효용을 얻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를 소재로 3D, 홀로그램, 애니메이션, 영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업화하는 일, 전통공예품을 상품화하거나 전통공예 기술을 이용해 문화상품을 만드는 일,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시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그러므로 문화재 활용을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로 정의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활용을 모두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사전적으로도 활용은 "그것이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려 쓰거나, 잘 변통하여 씀"²¹ 그리고 "충분히 잘 이용함"²²을 의미하므로, 문화재가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려 쓰고, 문화재를 충분히 잘 이용하는 것은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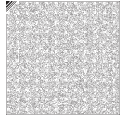
2. 활용 유형 분류 방안

문화재 활용 개념 확장에 발맞추어 활용 유형 분류도 이전의 사례들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요즘의 환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활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미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여러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어온 다양한 활용 사례들과 활용 정책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문화재 활용은 그 목적과 형태, 방법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다.²³

21 두산동아, 2001, 『동아세계어사전』 제4판, p.2656.

22 국립국어원, 2008[1999],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23 일반적으로 분류는 대상이 모두 포함되도록 포괄적이어야 하고, 분류된 범주들은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재 활용 사례들은 각각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경북궁 경회루 연향'은 향유이면서 교육이 될 수 있고,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세계적 활용에 해당되기도 하며,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경제적 활용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사례들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 정책이 갖는 중심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포괄성과 배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자 하였다.



1) 활용 목적에 따른 분류

우선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문화재 향유, 교육적 활용, 학술적 활용, 지역적 활용, 경제적 활용, 세계적 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활용 유형의 개념과 범주는 다음과 같다.

유형	내용
(1) 문화재 향유	관람과 감상, 답사 등을 통해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경관적 아름다움을 누리는 일
(2) 교육적 활용	학교 교육이나 성인 교육을 통해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나누고 전통적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일
(3) 학술적 활용	문화재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일과 정보 제공 등 문화재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일
(4) 지역적 활용	지역 문화재를 함께 보존하고 전승하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간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재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일
(5) 경제적 활용	문화재를 관광, 공연예술, 공예산업 등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
(6) 세계적 활용	문화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

(1) 문화재 향유

문화재 향유와 그것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문화재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국가나 지역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생활수준 향상 효과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관람, 감상, 답사, 체험 등 행위를 통해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얻고 예술적·경관적 가치를 누리는 것이다.

- 문화재 보존·전승을 통한 자긍심과 만족감 증진 및 생활환경 향상

- 문화재 관람, 감상, 답사 및 체험 등을 통한 가치 향유
- 전통문화와 전통적 요소의 현대화·일상화²⁴
- 문화재 개방·공개 확대와 향유기회 확대, 프로그램 개발 등 향유 기반 강화 등

(2) 교육적 활용

문화재를 교육에 활용하여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문화재 교육은 비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도 상당한 역사를 축적해 왔으며, 강연뿐만 아니라 현장 답사나 박물관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등을 나누고 전통적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일을 교육적 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학교와 박물관 등의 문화재 강연, 답사, 체험 등 학생·청소년 대상 문화재 교육²⁵
- 대학, 박물관, 문화단체 등의 문화재 강연과 답사 등 성인 대상 문화재 교육²⁶
- 홈페이지, 헤리티지채널, 스마트폰, QR코드 등을 통한 문화재 지식정보 서비스 등

(3) 학술적 활용

문화재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에 얽힌 역사와 문화 등을 구명해야 한다. 즉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다수의 시민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재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일과 문화재에 관

24 서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통건축 현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201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국악방송 공동으로 교가 국악 편곡 시범사업을 수행했고,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문화예술재단도 2012년 9개 학교를 선정하여 같은 사업을 지원했다.

25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 등 학교 문화재 교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어린이 바다문화학교',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 국사와 미술 등 관련 교과 교육에서 문화재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은주, 2013, 「경기 지역 어업노동자의 교육적 활용」 『국악교육연구』 7권 1호; 정병희, 2012, 「무형문화유산은 활용한 미술교육 효용 연구: 한국적 행위예술 요소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제26권 2호, 한국미술교육학회 등 참고.

26 (사)경주박물관회는 1994년 3월 9일 제1기 박물관대학을 개강한 이래로, 2013년 기초반 37기, 연구반 36기까지 배출하였다. 2008년 개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 문화교육원에서는 주로 교원직무연수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 등 문화재 분야 전문인 양성 교육을 운영한다.

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를 지원하는 일을 학술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건축문화재 등 학술조사 결과 제공
- 고전 원문 및 국역 서비스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등 연구정보 제공 등

(4) 지역적 활용

소유자와 관리자를 포함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은 지역 문화재를 보존·전송하는 현장 주체들로서, 문화재를 공유하며 동질감을 느끼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문화재를 구심점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것을 지역적 활용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 '자연유산 민속행사', 줄다리기 등 공동체 의례나 풍속을 통한 공동체 공고화
- '생생(生生) 문화재 사업' 등 주민들에 의한 지역 문화재 활용
- 근대문화재를 지역 문화공간이자 지역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것 등

(5) 경제적 활용

문화재가 단순히 과거의 산물로서 관람하고 감상하기만 하는 객체이거나, 보호해주어야 하는 대상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관광과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를 자원화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제적 활용은 이처럼 문화재를 경제적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외래 관광객 유치와 문화재 기반 축제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²⁷
- 전통공연과 전통공예 등 무형문화재 상품화

-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과 문화산업화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시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²⁸
- 문화재 수리·보수와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등에 쓰이는 재료 산업화 등

(6) 세계적 활용

국가 간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문화재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문화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과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을 세계적 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등재 유산 확대
- 해외 전시와 국외 소재 문화재 현지 활용
- 전통공연과 전통공예 해외시장 진출
- 저개발국 대상 문화재 공적개발원조(ODA) 등

2) 활용 형태에 따른 분류

문화재 활용은 활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독 활용, 연계 활용, 융합 활용 등이 그것이다.

유형	내용
(1) 단독 활용	다른 문화재나 문화자산 등과 연계 또는 융합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
(2) 연계 활용	둘 이상의 문화재, 또는 문화재와 문화재가 아닌 대상을 서로 이어서 코스를 설정하여 활용하는 것
(3) 융합 활용	둘 이상의 문화재, 또는 문화재와 문화재가 아닌 대상을 하나의 문화자산으로 합하여 활용하는 것

²⁷ 1993년에 시작하여 매년 5월에 펼쳐지는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1997년부터 매년 9~10월에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996년부터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강진청자문화제 등이 축제를 통해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례로 꼽을 만하다.

²⁸ 문화재 분야 사회적기업 지정·지원과 중요조문화재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등을 일자리 창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2012년 14개 단체, 2013년 10개 단체를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1) 단독 활용

문화재를 향유할 때 특정 문화재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둘 이상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시차를 두고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유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재 공연을 펼치는 것과 같이 둘 이상의 문화재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향유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중 다른 문화재나 문화자산 등과 연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단독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계 활용

단독 활용과 달리, 둘 이상의 문화재, 또는 문화재와 문화재가 아닌 것을 서로 이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연계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까이 있는 문화재들을 서로 엮어서 순차적으로 향유하도록 서로 시간과 운영 방식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나²⁹, 문화재 답사와 농어촌 체험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오전에는 고분과 탑 등을 답사하고 해설을 들은 후 오후에는 모내기 체험이나 갯벌체험을 함으로써, 문화재와 지역 문화자산을 이어서 활용하는 것이다.

(3) 융합 활용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의 문화재만 활용하는 단독 활용이나 연계 활용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문화재를 하나로 엮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융합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재 공연 또는 의례를 행하는 것이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융합하는 것 등이 융합 활용에 속하는 사례들이다.

3) 활용 방식에 따른 분류(1)

(1) 원형 활용(현재화)

유형	내용
(1) 원형 활용 (현재화)	문화재를 변형이나 변용 없이 본래의 상태 그대로 활용하는 것
(2) 변형 활용 (현대화)	문화재 보존·전승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날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히 변형·변용하거나 개조하여 활용하는 것

한편 문화재 활용은 유형·무형 문화재를 본래의 상태대로 활용하는 경우와 변형시켜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변형이나 변용을 거치지 않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원형 활용 또는 현재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화라는 것은 변화를 거치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문화요소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보존을 강조하는 유형문화재, 특히 지정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원형 활용 사례일 것이다.

(2) 변형 활용(현대화)

이에 비해 큰 틀에서는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되 오늘날의 필요에 의해 적절한 수준에서 변화나 변용을 거쳐 활용하는 것을 변형 활용 또는 현대화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화는 문화재를 현대사회에 맞추어 적절히 변화시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형 활용은 유형문화재 보다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문화재 보다는 등록문화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등록문화재인 근대건축물을 변형하거나 개조하여 전시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활용하는 것이 변형 활용에 해당한다. 본래의 모습에서 적절히 편집하거나

²⁹ 김순기, 2010, 『강경을 보행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근대문화유산의 통합적 활용 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지역 문화재 연계 활용에 관한 연구로 다음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나 변형하여 활용하는 사례는 무형문화재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4) 활용 방식에 따른 분류(2)

유형	내용
(1) 직접(1차적) 활용	관람이나 감상, 답사 등 문화재 자체를 실물로 직접 접하며 활용하는 것
(2) 간접(2차적) 활용	문화재를 직접 접하지 않고 2차적 산물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

(1) 직접(1차적) 활용

현장에 가서 문화재를 답사할 때나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를 관람할 때, 문화재인 고택이나 서원, 사찰을 체험할 때는 사람이 그 문화재들을 직접 접하게 된다. 이렇게 문화재 실물을 오감으로 직접 접하며 활용하는 것을 직접(1차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라면 보유자·보유단체나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들이 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직접 활용에 속한다.

(2) 간접(2차적) 활용

이와 달리 문화재를 직접 접하지 않고 복제품이나 매체를 통해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나, 문화재를 소재로 한 창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간접(2차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문화재의 복제품이나 모형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고택이나 서원, 사찰 등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건축물 대신 체험하는 것, 문화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 유적을 재현해놓고 발굴 체험을 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문화재 활용의 방향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일

은 문화재 활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다.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을 토대로 앞으로의 문화재 활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활용 범위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궁궐과 근대문화재 등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그것들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이다. 나아가서 활용 대상을 문화재 전체 유형으로, 조사·연구 등 문화재에 관련된 전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문화재 전 영역, 전 과정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은 특정 유형의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 모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화재라도 그 성격과 현재의 상태, 관련 환경 등에 따라 존재한다는 자체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둘째, 활용 품격을 높여야 한다. 양적 팽창을 위주로 한 활용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활용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활용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국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민간의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 주도형 활용이 효율적일 것이나, 근본적으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민간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넷째, 지역적 특색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일부 지방자체 단체의 활용 사례를 보면 아무런 특색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활용은 활용으로서의 가치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게 이어지기도 어렵다. 활용을 시도하지만 외면 받는 지역 문화재 현장과 박물관들이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전문화 된 활용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다섯째, 문화재 유형 간, 문화재와 타 분야 간 연계 활용, 융합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재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것일 뿐, 활용도 그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 간 연계·융합 활용은 수



요자에게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다. 또한 문화재를 관련 분야, 또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와도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문화재 활용의 지면을 넓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문화재 활용은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전통적 요소가 문화의 기초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8[1999],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 김순기, 2010, 『강경읍 보행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근대문화유산의 통합적 활용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 학위 논문
- 김창규 · 류호철, 2006, 「지방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문화재학』 제3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 두산동아, 2001, 『동아새국어사전』 제4판
- 류호철 외, 2012, 『문화재 활용 기본계획 연구』, 문화재청
- 류호철, 2008, 「사회적 공간으로서 청계천의 의미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1호, 역사문화학회
- 문화재청, 2013, 『문화유산 ODA(공적개발원조) 기본계획(안)』
- 문화재청, 2013,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계획」
- 문화재청, 2013,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보도자료
- 문화재청, 2012,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 5개년 기본계획: 2012~2016』
- 문화재청, 2012, 「살아 숨쉬는 4대궁과 종묘 만들기 추진계획: “품격은 높게, 문턱은 낮게” –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궁궐」
- 문화재청, 2012,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
- 문화재청, 2012,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 문화재청, 2011,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재청, 2010,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
-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 문화재청, 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
- 신은주, 2013, 「경기 지역 어업노동자의 교육적 활용」 『국악교육연구』 7권 1호
- 장호수, 2006, 「문화재 활용론 – 활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인문콘텐츠』 제7집, 인문콘텐츠학회
- 정병흠, 2012,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미술교육 효용 연구: 한국적 행위예술 요소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제26권 2호, 한국 미술교육학회
- 「문화재보호법」
- 「조선일보」, 1959.09.18. 사설
- E. B. Tylor, 1958[1871], *Primitive Culture*, New York: Harper
- <http://www.tour.go.kr>(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Expanding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and Classifying the Types

Ryu Ho-cheol

Assistant Professor, Anyang University
Majoring in Cultural Heritage Policy

••

E-mail : heritagist@daum.net

Abstract

The more income and free time people have, the more interest in cultural heritage they ge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light of this, Local governments put more effort to create colorful events using their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lso starts to implement policies to enhance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To keep those efforts on utilizing cultural heritage, however, several issues seem to be addressed in advance. Firstly, it needs to define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that could cover its current policy trend. Secondly, the utilization methodology should be categorized and classified. Therefore, the study for those issues should be carried out to utilize the cultural heritage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This study contain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evant policies and projects; the trend and meaning of the utilization. And, in this study, the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was defined as all activities producing positive effects or influences by cultural heritage such as enjoying cultural heritage values and creating additional profits. Furthermore, the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was categorized according to several criteria; the value, the objective, and the type of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Finally, the final part of the study includes proposals on the future policy direction of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Key Words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Concept, Type, Classification